포스트 코로나 환경/안전/보건 분야 한-아세안 ODA사업 전략
- ASEAN 중점 협력국 5개국 사례 연구를 통한 현황 분석 및 방향성 제시-

박지은 이우철 이은정 임서현 조욱래 (7G)

1. 서론

1) 연구 배경 및 중요성: 코로나 19 대유행 및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범지구적 도전과제로 국제 공조와 연대의 중요성 부각; 보건 및 안전 시스템이 취약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대상 지원 필요성 증대

2) 목적: 한-아세안 개발협력 MOU 체결 5개국을 대상으로 환경, 안전, 보건 분야 ODA사업의 코로나 발생 전, 후 난제 및 해결방안을 조사해, 동일 주제 문헌 부재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ODA전략 수립에 기여

3) 연구 방법: 2021년 3월~11월 간, 해당 연구 범위 사업 비교 및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학제간 연구를 통한 다각적인 관점 제시

2. 본론

1) 환경

a) 미얀마: 기후변화 취약국 2위 미얀마에 환경 빅데이터 기반의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후 및 환경 통계의 수집 및 활용 제약 극복, 기술역량 강화, 환경 데이터 활용 ODA방안 마련

b) 라오스: 기후변화 취약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ODA기여가 적은 라오스의 경우, 일본의 green mekong initiative, 독일의 거버넌스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ODA 사업 방향 제시

c) 캄보디아: 환경보호, 자연보전 ODA 사업은 증가 추세임에도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, 폐기물 처리 미흡; 타 분야 사업 운영시 환경문제 고려를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의 필요성 증대

d) 필리핀: 심각한 자연재해 및 생물다양성 위협을 겪는 필리핀의 경우 적극적 대응(2009년 기후변화법, 대기정화법, CDM 사업)과 국제협력(JICA, USAID)등 다양한 벤치마킹 가능

e) 베트남: 열악한 위생시설, 부족한 환경규제, 경제개발에 초점; 세계은행은 환경정책 및 제도, 아시아개발은행은 기후변화, 한국업체는 물 관련 수주에 집중

2) 안전

a) 미얀마: 정정불안, 전염병, 자연재해 순으로 위험도 상승; 코로나 이후 재난 대응, 여성 및 소수민족 포함한 갈등 예방 및 해결, 평화, 안보, 코로나 검사 및 예방사업 등 융합 ODA 진행

b) 라오스: 코로나 이전에는 자연재해, 열악한 의료 시스템, 취약불발탄 극복을 위한 한국의 '라오스 불발탄 제거 지원 사업' 등 재난/사고 예방에 집중; 코로나 이후 감염병대응 집중

c) 캄보디아: 자연재해 취약 및 지뢰 및 불발탄 이슈 증대로 한국의 불발탄 제거 지원사업 및 일본의 대인지뢰프로그램(2014~2020); 남남협력 방식으로 캄보디아-라오스, 이라크, 앙골라에서 지뢰제거 관련 기술 공유

d) 필리핀: 동남아시아에서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, 사건사고 다대하여 코로나 이전에는 자연재해 및 사건사고 관련 안전 사업 위주, 코로나 이후 한국의 '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' 등 신사업 추가

e) 베트남: 베트남전 과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'베트남 지뢰 및 불발탄 통합대응 역량강화사업 (2016~2021)', '베트남 폭력피해 여성 및 여아 예방 보호 모델 구축사업(2016~2021)'; 코로나 이후 '베트남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(2020)' 등 신사업 추가

3) 보건

a) 미얀마: GDP 대비 보건 지출이 1%에 불과하고, 병상확보가 시급하여 한국의 경우 감염병 대응지원에 집중한 " 전염병 연구소 역량 강화사업" 수행

b) 라오스: 입원자수에 비해 부족한 보건인력 및 역량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보건인력 역량강화 사업 집중, 라오스 정부는 2017년 '라오스 보건부 의료정보시스템' 도입 및 웹 기반 통합정보 플랫폼 전환을 통해 의료 서비스 강화 추진중

c) 캄보디아: 국가개발계획(NSD)으로 보건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구축, 보건 시설 접근성 개선, 의료인 능력 향상 등 원조기관과 협업해 ODA 진행중; 한국의 경우, 코로나 대응을 위한 포괄적 긴급지원 사업 수행

d) 필리핀: 코로나 전에는 부족한 의료인력과 미흡한 보건체계를 보완하고자 한국은 보건 ODA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영양개선사업, 보건 서비스 체계 강화 사업 수행;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포괄적 긴급지원 및 워크스루 진단부스 지원 사업 등 신사업 추가

e) 베트남: 타 ASEAN 국가 대비 의료인프라가 양호하여 코로나 발생 이전 한국은 식수 개발, 종합병원 건립사업 등의 사업 진행; 코로나 발생 이후 관련 대응 사업 등 보건 체계 강화 지원

3. 결론: 환경, 안전, 보건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ODA전망 및 사업 전략

(1) 환경 ODA 전략 제언

- (미얀마) ICT 융합형 ODA지원으로 일자리 창출, 다인종 특성을 고려한 지역간 포용성 강화, 데이터 활용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강화, 불평등 해소 및 기후정의 실현에 기여
- (라오스) 농림업 분야 고려, 기후변화 적응 사업 중심으로, 사업 관리 및 운영시 진행 및 평가 방법등을 개선하여 장기적인 사업 실행 필요
- (캄보디아) 환경분야 사업 추진 시 다양한 부처와 연계 진행 및 타 분야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환경문제 고려를 위한 구체적 ODA 사업 실행 지침 마련
- (필리핀) 해수면 상승, 해양생태계 피해 대비/저감 사업 개발 필요; 생태계 보호 및 에너지 프로젝트의 통합운영, 민간자금 활용 방안 모색 활성화, 협력국 환경데이터 수집
- (베트남) 환경에 대한 부족한 인식 극복 위한 정책화/법제화 지원 및 기술지원 병행 필요

(2) 안전 ODA 전략 제언

- (미얀마) 인프라 구축, 에너지 자원 개발 등 지속적 지원 필요; 군부쿠데타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및 계획 수정
- (라오스) 불발탄 제거를 비롯한 기존 안전 사업들의 지속적 지원 및 코로나 확진자 변동에 대응하는 유동적 지원
- (캄보디아) 불발탄 사업 지역 접근 어려움 및 정보원 확보 문제 고려한 해결책 필요
- (필리핀) 자연재해 및 코로나19 피해 예방을 위한 장단기적인 사업 진행 및 사업 지속성 강화를 위한 민간-시민사회-국제기구의 협업 강화
- (베트남) 확진자 변동을 반영한 코로나 관련 ODA 지원

(3) 보건 ODA 전략 제언

- (미얀마) 보건 ODA 규모를 농업분야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; 부족한 인프라 극복을 위해서 백신 지원을 넘어 포괄적인 보건 지원 확대 필요
- (라오스) 의료 인프라, 기술 및 역량사업 병행하여 필수 의료 장비 구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발전 도모; 우리나라의 다양한 공여기관간 협력을 통한 융합형 ODA 추진
- (캄보디아) 단기적으로 코로나 대응 지원 사업에 집중, 장기적으로 보건체계 및 인적 역량 강화 사업으로 확대 및 ICT 활용 보건 체계 강화 사업 필요
- (필리핀) 제약 시장 규모 활용한 연구 및 의료기술 이전 등의 ODA지원 다각화
- (베트남) 의료서비스 수혜층 확대, 의료분야 접근성 증대, 보건 역량 강화 위한 'e-헬스'